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휴장

순천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위해 “내년 4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많은 관심 바라”

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휴장한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휴장하며 휴장기간에는 모든 입장이 제한된다.

2013정원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치러지며, 박람회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을 넘어 순천만습지, 동천을 따라 도심

까지 확장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저유지를 정원화한 ‘오천그린광장’ ▲아스팔트 도로가 잔디길로 변신한 ‘그린 아일랜드’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 ▲지구와의 접촉, 맨발길로 건강을 챙기는 ‘어싱길’ ▲순천만 연안과 탐사르습지를 연결하는 ‘순천만 어싱길’ ▲순천만습지의 새로운 탐방 동선인 ‘문학관 생태탐방로’ ▲농경지의 새로운 변화 ‘경관정원’ 등을 선보인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 동천, 도심에 있는 오천그린광장 등 박람회장 전반에 걸쳐 화려한 야간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도시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2013정원박람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관람객 앞에 선보이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휴장한다.”며 “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해 내년 4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관람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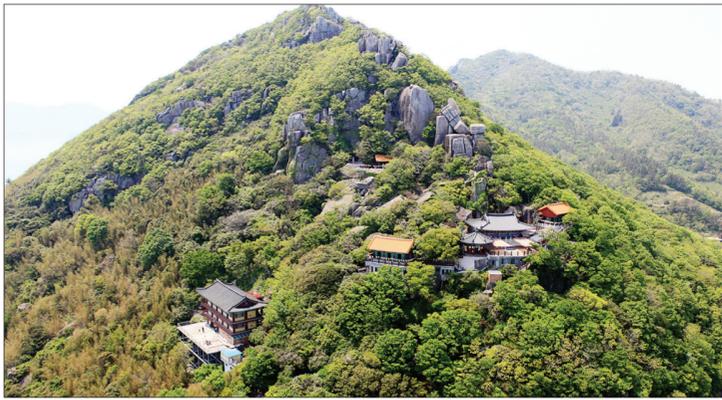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개최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적 가치 인정...상·하백도 이어 두 번째



여수시는 관음기도의 성지 ‘금오산 향일암’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명승 지정은 여수시가 지난 2월 자연유산 우수 잠재자원 추천서를 제출해 문화재청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지정예고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여수에서는 1979년 ‘상백도 하백도 일원’에 이어 ‘금오산 향일암’이 43년 만에 두 번째 명승으로 지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문화재청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뜻의 향일암(向日庵)은 명칭만큼이나 해돋이 경관이 아름다워 일출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거북 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들, 자연 암석으로 이루어진 해탈문 등 석문(石門)이 특별하고, 울창한 동백나무 숲과 조화되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금오산 향일암’

일원의 경관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원효대사가 원통암(圓通庵)이라는 암자를 짓고 수도하다 관세음보살을 진경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곳으로 경관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며 지정 이유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금오산 향일암’ 일원은 역사 속에서 바닷가로 이어지는 불교문화의 변천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장소로, 돌산군읍지(突山郡邑誌)·와·여산지(蘆山誌) 등 지방지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는 등 학술적 가치도 풍부하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명승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다. ‘금오산 향일암’ 일원의 명승 지정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고흥군, 민·관 협력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발 벗고 나서

고흥군은 지난 19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원 세모너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그 결과 395가구를 발굴해 위기 사유에 따라 공공·민간지원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에 더해 지역 내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다각적인 발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5개 관계기관·단체장은 민관 협력 영역을 더욱 넓히고자 함께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 기관·단체는 복지영역에서 꼭 필요한 기관·단체로 △고흥경찰서 △전남고흥교육지원청 △고흥소방서 △고흥우체국 △한국전력공사고흥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고흥보성지사 △고흥군새마을회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 △고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고흥군노인복지관 △고흥군장애인복지관 △고흥지역자활센터 △고흥군가족센터 △고흥나누리상담센터 등이다.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복지지원 연계 △각 기관의 각종 복지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다각적인 발굴체계 강화와 좀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영민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뜻을 함께해준 여러 기관·단체장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군민 한 사람도 복지혜택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함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백운산 치유의 숲에서 웰니스 광양여행

햇살 비치는 편백나무숲 거닐고 따뜻한 족욕으로 휴식

광양시가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꼽히는 백운산 치유의 숲에서 저무는 한 해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웰니스 광양여행을 추천한다.

해발 1,222m 백운산은 성불, 어지 등 4대 계곡을 거느린 대한민국 100대 명산이자 식물의 보고이며 봉황, 여우, 돼지 등 삼정의 기(氣)가 흐르는 영산이다.

또한 126.36km에 이르는 9개의 둘레길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갖춘 백운산자연휴양림이 깃들어 있다.

백운산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 숲길, 치유센터, 치유정원, 풍욕장 등을 갖추고 나이, 구성원의 성격 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풍욕, 명상 등 내부와 외부 활동이 조화롭게 구성됐으며 계절과 날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동절기(12~2월)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편백나무숲을 거닐고 명상과 공예체험,

족욕 등을 즐길 수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치유의 숲 놀이터는 ‘2020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될 만큼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놀이기구들로 가득 차 있다.

지난 5월에는 백운산 치유의 숲이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돕는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삼정의 기가 흐르는 백운산 치유의 숲은 맑은 공기와 고요한 명상 등을 통해 아늑한 휴식을 즐기고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맞춤 웰니스 관광지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가로운 산책과 족욕을 즐기고 광양불고기, 광양닭숯불구이 등으로 일정을 마



무리한다면 맛있는 웰니스 광양여행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목재문화체험장, 백운산 둘레길, 백운산 등반, 숲가스 등도 놓치지 가까운 백운산 겨울여행 콘텐츠다.

광양=김현근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